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 출시

2025 년, '뱀의 해'를 기념하여 에나멜링과 인그레이빙 공예에 경의를 표하는

타임피스

주요 특징

- 핑크 골드 메탈 케이스(750/1000)에 수공 인그레이빙으로 각인된 강렬한 스네이크 모티프
-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블랙 그랑 퓨 에나멜 소재의 케이스백과 다이얼
- 리베르소 트리뷰트의 아르데코 디자인을 활용한 진귀한 예술 작품

예거 르쿨트르가 2025 년 뱀의 해를 맞이하여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를 출시합니다. 한정 수량만 주문 제작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타임피스는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메티에 라르™ 아틀리에의 에나멜 장인과 인그레이빙 장인들의 탁월한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진귀한 작품입니다.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특별한 캔버스

1931 년, 리베르소가 처음 공개되었을 당시 컬렉션을 상징하는 회전형 케이스는 폴로 경기에서 시계의 다이얼과 글래스를 보호하는 획기적이면서도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각계각층의 트렌드세터들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과거 스포츠에서 사용하기 위해 탄생한 최초의 목적을 넘어 그 이상으로 거듭났습니다. 메탈 소재의 케이스백은 예술적인 표현을 추가할 수 있는 캔버스가 되어 인그레이빙, 에나멜, 기타 다양한 공예기법을 활용하여 장식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선사합니다.

2025 년 그랑 메종은 탁월한 장인 정신과 예술성을 계승해온 그간의 역사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를 출시합니다. 호랑이띠와 용띠에 이어 십이지신에 경의를 표하는 시리즈 중 세 번째로 선보이는 새로운 타임피스는 아시아 문화권에서 오랜 시간 장수와 지혜, 신비로움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는 뱀을 기념합니다.



인그레이빙과 그랑 퓨 에나멜링 공예기법을 기념하는 타임피스

시계 케이스를 반대편으로 회전시키면 글로시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 배경 위로 황금빛 구름(750/1000) 속에서 뱀이 힘차게 솟아오르는 듯한 형상이 인그레이빙된 새로운 케이스가 드러납니다. 폴리싱 처리된 뱀의 표면과 블랙 로둠을 사용하여 직접 새겨 넣은 비늘의 섬세한 디테일, 구름의 대조적인 샌드블라스트 텍스처가 빛을 포착하고 굴절시켜, 더욱 역동적인 움직임を 느낄 수 있습니다.

마스터 인그레이빙 장인은 입체감과 깊이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도의 집중력과 탁월한 테크닉이 요구되는 정밀한 모델링 인그레이빙 기법을 적용했습니다. 특히, 이번 인그레이빙 장인의 작업은 메탈 표면에 인그레이빙을 새기는 일반적인 작업 공정과는 달리 그랑 퓨 에나멜 코팅을 마친 후 인그레이빙을 해야 했기 때문에, 깨끗한 에나멜이 손상될 위험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정확성이 필요했습니다. 크기가 다른 10 개의 끌을 사용하여 단계별로 메탈을 조각하기 위해, 인그레이빙 장인은 80 시간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의 다이얼은 케이스백과 동일하게 글로시한 블랙 그랑 퓨 에나멜을 갖추었습니다. 아르데코 스타일을 반영한 심플하고 우아한 시그니처 리베르소 트리뷰트 다이얼에 각면 처리한 아플리케 아워 마커, 레일웨이 미닛 트랙 및 도피네 핸즈를 장식하여 빛나는 배경의 아름다움에 완벽함을 더해줍니다.

블랙 에나멜에 담긴 심플한 매력은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랑 퓨 에나멜의 특성과 대조적입니다. 깊고 그윽한 블랙 컬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5~6 겹의 에나멜 층이 필요하며, 한 층을 더할 때마다 가열과 냉각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에는 며칠 동안 이어지는 최소 24 시간(케이스백에 16 시간, 다이얼에 8시간)의 작업이 소요됩니다. 완벽하고 균일한 광택을 얻기 위해 반나절 동안 폴리싱 작업을 거쳤습니다. 컬러와 투명도가 완벽히 일치하는 두 개의 표면은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해온 장인들의 탁월한 장인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자체 에나멜 작업장을 갖추고 있는 극소수의 매뉴팩처 중 한 곳으로 오랜 역사를 지닌 공예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뱀의 해를 기념하는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에는 매뉴팩처에 속한 워치메이커들의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히 조화를 이룬 예술 작품이 탄생하는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상세 정보

리베르소 트리뷰트 에나멜 '스네이크'

케이스: 핑크 골드(750/1000)

크기: 45.5mm x 27.4mm x 9.73mm

칼리버: 매뉴얼 와인딩 칼리버 822

기능: 시, 분

파워 리저브: 42 시간

다이얼 장식: 블랙 그랑 퓨 에나멜, 애플리케 인덱스

케이스백 장식: 블랙 그랑 퓨 에나멜, 인그레이빙

방수: 3 바(bar)

스트랩: 블랙 악어 가죽

제품 번호: Q39324D2

제작: 한정 수량, 주문 제작

예거 르쿨트르 소개 –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

1833 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발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왔으며 430 여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랑 메종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최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80 여 개의 기술력이 한 지붕 아래 모인 매뉴팩처에서 기술적 독창성과 미적 아름다움, 절제된 세련미가 결합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을 탄생시킵니다.